

내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 미 샌디에이고와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 최종 확정 70여 개국 1000여 명 참석... 76억여 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

내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치 경

쟁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광주가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울

해로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 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서울시가 2009년 개최한 이래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두 번째이다. 내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0여 개국 10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대회가 열리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

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기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중소기업 수출 증대·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76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5명의 고용유

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2025년 세계양곡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까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광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아이가 안전하게 꿈 키워가는 광산 조성”

광주 광산구,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선언 및 학대 예방 교육



광주 광산구가 11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광산구 소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선언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날 행사와 교육은 아동 보육의 최일선 현장인 어린이집부터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산구는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어린이집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보육 교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산구도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행택기자

전남도, 유기농자재 지원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

올 예산 전년 대비 151% 증액한 103억 확보...관행농가도 혜택

전남도는 농업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린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한다. 사업 대상에게는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 종자, 토양검정 및 컨설팅 등 비용을 보조한다. 지난해까지는 친환경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의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법인으로까지 지원 대

상을 확대, 관행 농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41억 원 대비 62억 원(151%) 증액한 103억 원으로 늘렸다.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농업인·법인은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서, 자부담 선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ha당 총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농가는 200만 원까지, 무농약인증 농가는 150만 원까지, 관행농업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녹비종자는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품목별 1ha당 최대 지원 한도(무계 기준)는 헤어리베치 60kg, 녹비(쟁)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까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나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1일부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에 나선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국내 첫 번째 확진을 받으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고,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의 지역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교육(6월16일)과 검사능력평가(6월30일~7월4일)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 능력을 확보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5월 유럽과 북미 등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6월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슬비기자

한국인론진흥재단
from 1983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담양 농수축산물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 농수축산물, ‘라이브커머스’ 날개 달고 올해도 매출 쑥쑥

‘남도장터’ 입점 농·어·가·소·상·공·인, 상반기 2억722만원 판매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전남 농수축산물 판매에 날개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jnmall.kr)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가 도내 농·어·가·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도장터 라이브커머스는 전남도가 농수축산물 유통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흥어, 계장, 복숭아, 장어 등 171개 업체가 5억437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판매는 순항 중이다. 6월 말까지 남도장터에 입점한 농·어·가·소·상·공·인 등 50개 업체가 파프리카, 김치, 고구마, 전복 등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2억722만원 판매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나주 초당옥수수의 경우 4760만원을 판매해 최고 매출 실적을

거뒀다. 이어 완도 전복 1978만원, 담양 약과 1808만원, 나주 소고기 17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전남도는 라이브커머스 참여 선정 업체에 방송 판매자 인건비, 쇼핑 지원금 등으로 쓰일 운영비를 400만원씩 지원했다. 올해에는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상시 홍보하는 상세페이지 제작까지 추가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총 100개 농·어·가·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 판촉전에 진행할 계획이 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접속하도록 축제, 관광지 및 연계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농과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 환한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